

희생자·유가족 지원 '여객기참사 특별법' 추진

NEWS

2025년 3월 7일 금요일

민주당 이수진 이어 전진숙·문금주 각 발의 일상 회복 지원... 명예훼손 방지책 등 포함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법안 3건이 잇따라 발의됐다.

모두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다. 특히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했고, 위원은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과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이 지난 5일 각각 발의했다.

◇전진숙 "2차 가해 처벌·피해자 완전 회복은 국가 책무"

전 의원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 돌봄지원, 법률지원, 치유휴직 등 피해자

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와 장기추적 연구 시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종합적인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와 장기적 후유증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유가족뿐 아니라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차 가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와 함께 국가에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문금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피해자 일상 회복에 초점"

문 의원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가족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 직권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피해자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건강 및 심리치료 등 의료지원과 함께 복직·돌봄·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 지원하도록 했다.

여객기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

도록 해, 참사 관련 가짜뉴스 방지와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수진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이수진 의원은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부 차원의 피해지원 종합 대책 마련 △심리치료 등 의료비·생활금·돌봄 지원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 지원금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또 최근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해 방지 대책을 정부가 마

련해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별도의 처벌규정을 명시했다.

국회와 지원·추모위원회, 유가족협의회에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지원 등에 대한 정보요구권과 의견제출권을 명시했다.

기존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따른 사고조사위와 사고조사단에 국가가 추가적으로 각 2명 이내에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 국민에게 아픔을 준 대형 재난참사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자와 우리 공동체의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강기정 광주시장이 6일 오후 서구 일가정양림지원본부에서 열린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전인 정진희 회장, 신임 이영숙 회장 등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전남도-경기도 호남향우회, 고향 미래발전 '맞손' 수원서 정책비전투어...도정 비전 공유·고향사랑 실천 다짐

전남도는 6일 수원에서 정책 비전 투어를 개최하고, 경기도 호남향우회와 전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국립외국어대학교 설립과 전라남도특별자치도 설치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책 비전 투어는 전남도가 매년 시군을 방문해 도정 성과와 비전을 도민에게 보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던 '도민과의 대화'를 광역 향우회로 확대·개편한 행사로, 지난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이날 경기

도에서 진행됐다.

정책 비전 투어에선 김포중 경기도호남향우회장을 비롯해 경기도 31개 시군 향우회장과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 주재로 △전남도 국립외국어대 설립 △전라남도특별자치도 설치 △지방소멸위기 극복 등 전남도가 직면한 현안 해결과 지속적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호남향우회는 이날 고향사랑기부

금 1000만원을 기탁하고,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10만명 가입 약정을 하는 등 고향 발전에 힘을 모았다.

전남도는 정책 비전 투어 행사장 입구에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국립외국어대, 전남 농특산물, 귀농어·귀촌 정책, 관광 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록 지사는 "고향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는 경기도 향우들께 도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전남 발전에 대한 향우들의 열망과 성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bul@

광주방문의 해 관광상품 '소년의 길' 시범 운영

광주관광공사, '소년이 온다' 소설속 5·18 사적지 코스화
이달 특화 관광상품 운영 여행사 모집해 본격 출시 예정

광주관광공사(사장 김진강)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문학작품을 관광과 연계한 '소년의 길(부제: 소년의 시간을 걷다)' 상품을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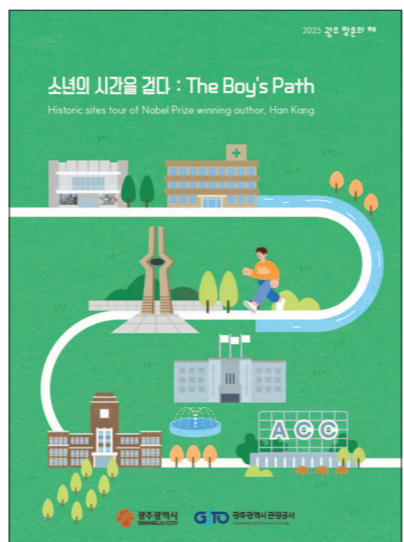
'소년의 길'은 유명 문학작품인 '소년이 온다'의 소설속 배경지 중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사적지를 중심으로, 한강 작가가 집필 당시 걸었던 광주의 명소와 트랜드한 역사문화 공간을 결합한 인문학 기반 관광상품이다.

주요 코스는 5·18사적지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인 전남대학교와 옛 전남도청 인근 5·18민주광장과 상무관, 전일빌

딩 245 및 광산길(전별길)을 따라 오월서적을 만나볼 수 있는 독립서점 '소년의 서'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소년의 길' 특화관광상품 시범 운영은 방송사, 매거진, 관광업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이달 중 2025 광주방문의 해 특화 관광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최근 광주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을 수상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각광받는 역사 여행지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소설 속 5·18 배경지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광주만의 특화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 상품으로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대한민국 정치 대전환·새로운 리더십 창출 앞장"

'희망과 대안' 포럼, 광주지부 창립...민주당 혁신 강조

대한민국 미래정치 플랫폼을 표방하는 '희망과 대안' 포럼이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지부 창립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대한민국 정치 대전환과 새로운 리더십 창출, 정권교체를 위한 출발을 다짐했으며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정치인 및 시민사회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이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당 혁신과 정치 대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민주당이 공정한 대선 경선을 통한 정권교체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립식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민주당 내 비명계 대선주자들이 영상 축사를 통해 개헌과 민주당의 혁신, 정권교체 등을 강조했다.

또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갑석 민주당 전 최고위원, 정춘숙 서동용 윤재갑 전 의원이 축사를 했으며 노병성 상임공동대표(전국유권자연합회 회장)와 광주지부의 조인석 공동대표(한국부인회 전 광주시지회장), 노진영 상임고문(광주대학교 전 이사장) 등이 인사말을 했다.

포럼 이사장을 맡은 양기대 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에서 시작된 변화가 민주당을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의 새 길

을 여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특정 계파가 아닌 국민이 100% 직접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가 민주당 혁신의 시작이자 정권교체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완전국민경선이야말로 당내 통합은 물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뜻을 만드는 정치 개혁이다"고 말했다.

양 이사장은 이어 "광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정한 정치,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는 데 앞장서고 광주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포럼은 광주의 청년을 포함한 참신한 정치세력이 등장해 지방 정치를 바꾸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

대한민국 탄소중립에 앞장 서겠습니다

전남-곡성 모들러 주택단지 / 휴인 설계 시공

공학목재(구조용 집성목재) 제조·공급하는 지역기업입니다.

국내 KS 인증서 (구조용집성목재)

국내 신기술 인증서 (합판교의 CLT)

내화구조 인증서 (기둥, 벽체, 바닥)

- 목조건축 상담 및 설계지원
- 건축구조재(CLT) 신기술 인증 보유 기업
- 내화구조 1시간, 2시간 인증
- 구조용 집성목재 생산·시공(KS인증 보유)

집성목재 생산 및 납품

화산 - 치유센터 목구조 골조

화산 - 치유센터 목구조 설계지원 및 시공

문의 및 상담 Tel. 061-271-5777 / 062-945-0036~7 www.huin.kr